

고혈압의 약물요법



이 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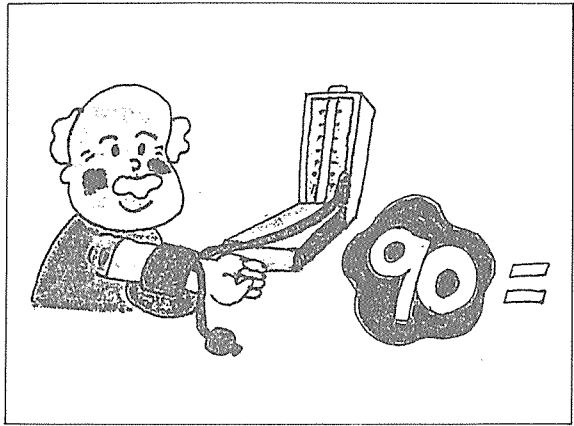
약물요법은 고혈압치료의 일부이며 결코 전부가 아니다. 염분섭취의 제한·스트레스의 조절·체중조절·과음방지 등 여러가지 비약물요법을 실시하면서 약물을 써야 고혈압이 효과적으로 치료됨은 물론 여러가지 약물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어떤 경우가 약물요법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혈압은 낮을수록 심장혈관계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의 혈압이 약물요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 수는 없다.

심장이나 신장 등 장기에 아무 병도 없고 당뇨도 없으며 자각증상도 없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단지 혈압만 높을 때는 최저혈압이 105 mmHg 이상이 되면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각종 심장병·신장해·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으면서 나이가 60세를 넘었거나 고혈압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있을때는 혈압이 그 이하라도 약물치료를 해야되는데, 여러 경우에 측정된 최저혈압이 평균 95mmHg 이상이면 조심스럽게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최저혈압은 90mmHg 이하로 정상이면서 최고혈압만이 높을 때는 심장이나 혈관에 고혈압 이외의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개별적인 처리

최저혈압은 90mmHg이하로 정상이면서 최고혈압만 높을 때는 심장이나 혈관에 고혈압 이외의 질병이 의심된다.



를 해야한다. 강압제의 종류와 강압작용 및 부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노제

이노제는 소변으로 수분과 함께 나트륨(Na⁺)을 배출하므로써 혈압을 떨어뜨린다.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은 체내에 수분을 잡아두어 체액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려니와 혈관벽을 형성하는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과량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은 이노제의 유용한 면인데, 동시에 칼륨(K⁺)도 배출시키므로 쇠약감·근육마비·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이노제를 많이 사용할 때는 칼륨을 동시 투여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칼륨을 보존하는 특수 이노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노제는 혈청지방과 혈당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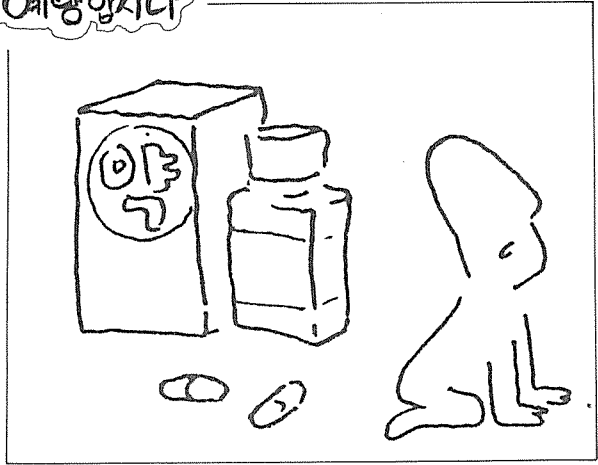
2. 베타 차단제

혈압은 심장의 수축력과 말초혈관의 저항력 등 두 가지 요인으로 일어나는 압력인데,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며 심장박동의 횟수를 느리게 해줌으로써 강압효과를 나타낸다. 여러가지 베타 차단제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부작용으로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천식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심한 만성기관지염 환자에게는 쓰지 못하며, 심부전증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

수족이 차고 저리는 부작용도 있다. 이노제와 마찬가지로 혈청지방과 혈당을 높이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써야 한다.

이노제는 혈청지방과 혈당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쓴다.



3. 칼슘 길항제

칼슘 이온은 심근이나 혈관벽 평활근의 세포내로 들어감으로써 이들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칼슘 길항제는 칼슘이 이들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써 심장의 수축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베타 차단제나 마찬가지로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며, 어떤 칼슘 길항제는 방실블록 등의 전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써서는 안된다.

4. 알파 차단제

말초동맥벽에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받아들이는 알파 수용체라는

장치가 있다. 이 수용체가 교감신경 흥분을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오른다.

알파 차단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교감신경 흥분을 혈관이 받아 들이지 못하게 하므로써 혈압을 내리게 한다.

심부전증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것이 결점이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뇌빈혈을 일으켜 졸도하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써야 한다.

5.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강압제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말초의 교감신경흥분을 억제하므로써 강압작용을 나타낸다. 피로감·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6. 혈관평활근 이완제

동맥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평활근을 직접 이완시켜서 강압작용을 나타낸다. 부작용으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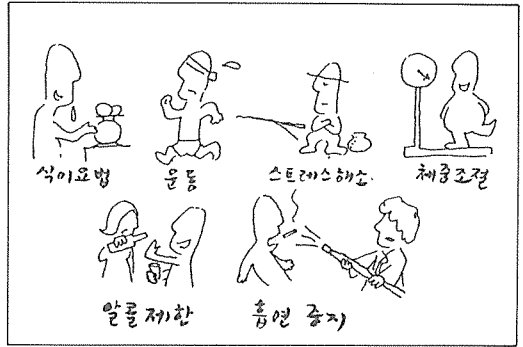
7. 안지오텐신 저해제

콩팥에서 생산되는 안지오텐신이란 물질의 생산을 억제해서 강압작용을 나타낸다. 안지오텐신은 혈관을 직접 자극하여 수축시키며, 한편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체내에 나트륨을 저류시켜서 역시 혈압을 상승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

부작용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수가 있고, 콩팥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에게는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강압제가 있으나 어느 강압제거나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약이 더 좋다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강압효과와 환자의 신체적 배경에 따라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해서 써야 한다. 이런 전문적 지식에 속하는 일은 의사에게 맡겨야 할 일이다.



흔히 고혈압환자들은 약을 평생도록 복용하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 지루함을 상상한 나머지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이런 물음에 명쾌한 대답은 할 수 없으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그리 절망할 정도로 사람을 속박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비약물요법을 철저히 시행하면 경증고혈압은 약을 쓰지 않아도 조절할 수 있다.

하루 한 번 먹는 약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여러 달 여러 해를 두고 열심히 치료하면 극소량의 강압제로 혈압을 훌륭히 조절할 수도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되는 약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국립의료원 내과〉

비약물요법을 철저히 시행하면 경증고혈압은 약을 쓰지 않아도 조절할 수 있다.